



친환경 인증·사후관리 꺾꺾해졌다

농관원, 민간인증 상시 관리체계 구축...소비자 참여도
잔류농약검사 37% 늘리고 성분도 320가지로 확대
시·군, 전남도와 정보 공유...‘명예감시원제도’ 활성화

인증기관의 잇따른 부실인증과 농가의 불법
제조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
이 깊어진 가운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다
양한 정책이 마련됐다.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전남지원(지
원장 신동하)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
뢰 회복을 위해 인증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에 대
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.

전국 친환경 인증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
하고 있는 광주·전남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친
환경 부실 인증 및 보조금 횡령 사건과 인증농
가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생산 농산물에 대
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고, 그 여파로 지난해
3489가구가 인증을 취소 당하는 아픔을 겪었
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관원이 주축이 되어
신속하게 인증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지난해
전년도에 비해 농가수는 46%, 인증면적은 40%
감소하는 등 인증의 내실화에 성과를 내면서 안
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.

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에도 ▲친환경농산
물의 생산·유통단계 취약시기 사후관리 강화
▲민간인증 상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부실인
증 방지 ▲인증관리에 대한 소비자 참여 확대로
인증의 객관성 확보라는 목표를 세우고 소비자
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.

농관원은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인
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산단계 친환경
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지난해보다 37% 확대
한 2470점을 분석할 예정이다. 인증심사 및 사
후관리과정에서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 성분
수를 245성분에서 320성분으로 확대 시행한다.

한편, 전남도 각 시·군에서 소비자 신뢰확보
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잔
류농약검사 지원사업과 관련, 도와 업무협의를
통해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. 잔

류농약이 검출된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추적조
사를 통해 행정처분까지 명확히 이뤄지도록 대
책을 강구했다. 또 전남도와 협력해 2007년도부
터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제도를 활
성화한다. 이를 위해 기존 생산자 단체에서 소
비자단체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연중 140명의
명예감시원이 상시 인증농장에 대한 민간 감
시·신고 활동을 전개한다.

민간인증기관의 부실심사를 차단하기 위해 2
중·체크 시스템을 도입, 민간인증기관이 인증
한 인증 건에 대해 전남지원이 표본을 선정해
인증심사 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
확인한다.
특히, 올해는 정부 3.0 시책의 일환으로 지자

체와 협업을 통해 각 시·군에서 자체적으로 실
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
관원 전남지원과 공유하고, 잔류농약이 검출된
인증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까지 명확히 이
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도 이양·파
종기(4~5월) 및 하절기(8~9월)에 제조제 등
유기합성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, 농
관원 소속 40개 조사반과 20여개 민간인증기관
을 투입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.

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“친환경농산물 생
산·유통과정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
중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”이라고 강
조했다. 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

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들이 고추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잔류농약검사 등 현장조사를 하고 있
다. <농관원 전남지원 제공>

농협중앙회, 벼 직파 재배 확대에 100억 지원

이양재배보다 비용 23% 덜 들고 수확량은 두배 많아
22개 농협 시범사업...“2024년까지 재배면적 20% 늘릴것”

농협중앙회는 올해 22개 농협에서 벼 무논점
파(직파) 재배를 확대·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
을 한다고 13일 밝혔다.

농협은 지난해 9개 농협에서 무논점파 기술보
급을 위해 시범재배를 한 결과, 이양재배보다 생
산 비용은 22.7% 덜 들고 수확량은 이양재배보
다 99.4% 많았다고 설명했다.

농협은 올해 직파기 보급과 운영비용 등 100
억원을 지원해 무논점파 재배면적을 늘려갈 계
획이다.

우리 농촌은 고령화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
겪고 있으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수입쌀과 경쟁
하려면 생산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
이 나오고 있다.

무논점파는 벼씨를 직접 논에 일정한 간격으
로 뿌려 재배하는 방법이다. 육묘(育苗)를 위해
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, 따로 모내기를
할 필요가 없어 일반 기계 이양재배보다 노동력
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.

2013년 기준 전국 무논점파 재배면적은 1만2

천193ha로,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.5% 수준에
불과하다. 종전에 무논점파는 수확물이 낮고 잡
초도 많이 생기는 등 단점이 많아 농민들이 외면
했지만 최근 수년 농촌진흥청이 연구·개발을 거
듭해 재배 기술이 개선됐다.

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“무
논점파 재배를 2024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의
20% 이상으로 늘려 농업 소득증대에 이바지할
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0일 영암에
서 강남경 전남본부장과 관련 농업인이 참석한
가운데 무논점파 재배 시범사업 파종 시연회를
가질 예정이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

지난해 4월 보성을 찾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이양기를 타고 무논점파(직파)를 시연했다.
<광주일보 자료사진>

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!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개업·성업 안내

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.220-0551

토담
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
병어조림, 갈치조림, 아구찜, 홍어찜
회무침 전문(계절별)
대표 김광수 ☎062)954-1333

오리백년두암직영점
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
오리한방, 백숙, 오리생고기, 주물럭,
오리뚫달, 오리 장어탕
☎062)401-5253

일등모바일
동구 금남로 2가 7-4
(구)동구청 1층
핸드폰·악세사리 도매 전문점
☎010-4655-9689

송하한정식
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
청국장, 가마솥육개장
한정식, 백반전문
☎062)225-9278

초대화랑
동구 공동 54-2 (중앙로 196번길 15-16)
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
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
대표 임택택 ☎010-2681-3113

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
북구 두암동 561-5홀플러스건너편
광주은행건물 4층
인해, 풍수, 사주연구소 연구원
원장 이성호 ☎010-8278-0030

광주화랑
동구 공동 예술의거리
동·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
고급표구 제작판매
대표 박종환 ☎062)232-4784

박당화랑
동구 공동 51-18번지 예술의 거리
한국화, 서양화 매매 및 감정
대표 박환승 ☎062)222-6866

석당화랑
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
병풍, 액자, 족자, 표구일체
고서화 위탁판매
대표 이석재 ☎062)222-3118

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
동구 광산동 56-1 (번지역상실옆)
부대찌개, 첼판구이
점장 최은진 ☎062)222-9290

그린이용원
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
대표 성옥희 ☎010-3225-2735

신신예술의집
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
기념품 전문 판매점
대표 서태석 ☎062)222-1936

똥이레
동구 대의동 10-1
바다장어, 찜닭, 불장어, 샤브샤브,
돌판볶음, 소금구이, 양념구이, 계절떡국
대표 윤영희 ☎062)234-7949

고전방
동구 금동 34-4 (중앙초등학교 후문)
도자기, 서양화, 고서화 전문판매점
대표 김화중 ☎062)224-4869

광주척추교정원
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
카이로프랙틱, 신경질환, 목, 허리디스크
협착증, 사지관절, 손발저림, 전신경락
☎010-8827-7799

아워홈테크
북구 우산동 617-10 문화중학교 담도로
한샘iK체류점 아파트, 주택, 리모델링
abs도어 연동문 씽크대 불박이장
대표 김창두 ☎010-6635-7224

27번가
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(구)동구청 뒤
훈연바베큐, 기계맥주
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
☎062)223-2727

토산철학원
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
직영, 개명, 사주, 신수
궁합, 택일, 상호명 개인지도합
대표 이태연 ☎010-4106-5055